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교정본부

COVER STORY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의 여름에는 희망이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센터가 '고위험 범죄자 재범 방지'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날은 뜨거운 여름의 초입이었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뽕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던 이재무 시인의 「나는 여름이 좋다」 속 그대로의 계절... 누군가의 새로운 삶이 이토록 성장하는 여름 같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정한성 교사, 박남중·이우정 교위, 박영식·채민지 교감, 권용민 교사, 이정은 교감. 그들의 여름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남깁니다.

교정 풍경	02
교정인의 눈	08
교정직필	12
스마트 교정	14
세계는 지금	16

職터뷰	18
나이스 투 밋 유	22
만나다, 잇다	26
교정Toon	28
슬기로운 교정생활	30

로컬의 취향	32
일상력연구소	36
라이프 2.0	40
나의 마음은	42

교정본부 뉴스	44
교정기관 오늘	48
독자마당	52

Contents

교정

Vol.599
2026 JULY+Aug

생각을 잇다

‘오래’와 ‘새로’가 나란히, 울산구치소 분류센터 10년의 성과와 과제	02
여름 길들이기	08
데이터로 본 분류센터: 과학적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발자취	12
글로벌 교정 트렌드 리포트	14

마음을 잇다

“AI와 같이 일하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안양교도소 박건규 교사에게 묻다	18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가 처벌보다 재범 방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22
순천교도소 ‘상호존중의 날’을 소개합니다!	26
2025 교정본부 홍보 공모전 웹툰 부문 우수작 「만능 교도관」	28
무더위에도 불끈!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30

일상을 잇다

찰나의 낭만이 일상의 영원으로, 군산을 걷다	32
GDP는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팍팍할까?	36
성공과 실패 경험에서 나만의 자원 찾기	40
혹시 나도 불면증일까?	42

소식을 잇다

교정본부 주요 소식	44
전국 교정기관 소식	48
초성퀴즈 이벤트	52

발행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6년 8월 5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와 ‘새로’가 나란히, 울산구치소

1994년 2월 개청한 울산구치소는
2025년 증축을 마치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인권이 보장되는 ‘거리’를
고민한 결과다.

울산구치소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풍경. 오래된 건물과 새로 지은
수용동이 나란하다.



1



3



2



4

- 1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붉은 벚나무 잎으로 뒤덮이는 길. 여름을 맞이한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
- 2 1994년부터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울산구치소 A동은 1990년대 건축물 특유의 낭만이 있다.
- 3 "꿈과 희망의 교정, 울산구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지개 형상에 담긴 것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 4 말끔하게 칠한 옛 수용동 출입문과 새로 지은 수용동이 마치 처음부터 짝이었던 듯 어울린다.



5



6

울산은 오랫동안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을 이끈 국내 최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집적 단지를 품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 입주 기업 1,115개사가 44조 원 생산·168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울산구치소는 산업도시 울산의 유일한 교정시설이다. 1994년 개청 이래 30년 넘게 그 역할을 맡아왔으며, 2021년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 재판부가 개원하면서 수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결과는 과밀 수용으로 이어졌다. “한때 150%에 육박했던 걸로 알아요.” 총무과 우동우 교사가 경남 방언 치고는 높낮이 차가 적어 은근한 맛이 있는 울산 사투리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과거는 새로운 오늘이 됐다. “꿈과 희망의 교정, 울산구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치형 구조물에 적합한 환경 인사를 지나, 소 내에 들어서서 마주하는 첫 번째 풍경은 거대한 덩어리의 청사다. 이윽고 반듯한 벽돌 건물에 눈에 들어온다. 울산구치소는 2025년 증축을 마치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기존에 있던 A동과 B동은 빌딩형, 새로 지은 C동은 캠퍼스형이다. C동을 들이면서 울산구치소 정원은 570명으로 늘었다. 과밀 수용도 역시 130% 안팎을 유지 중이다. 이 변화에는 숫자가 다 말해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5명이 정원인 거실에 8~9명이 같이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특히 여름에는 1명만 늘어도 수용자들의 스트레스가 폭증해요. 처음에는 수용자 간 다툼이 늘고, 지속되면 수용자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저희 소 증축은 최소한의 거리 유지라는 수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했어요.” 2018년부터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우동우 교사는 증축 전과 후, 수용 관리의 변화를 체감했다.

증축을 통한 인권 보호는 ‘적절한 거리’에 머물지 않는다. 울산구치소는 증축 후 A동 1·2층에 나뉘어 있던 공무상 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C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동시에 확장이 이뤄졌고 이후 더 많은 수용자들이, 더 깨끗한 시설에서 접견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증축하면서 장애인 거실을 마련한 것은 울산구치소의 수용 관리 원칙을 대변한다.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하도록 문턱을 없애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를 부착했다.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들에게 교정시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배려일 것이다. 새로 지은 변호인 접견실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C동의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새길동’, 새로운 길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한 이름이다.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근 리모델링했다는 체력단련실은 ‘울산 마동석’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을 틈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체력 단련 동호회 ‘헬스&크로스핏’ 사람들이었다. 회원 수만 30명, 지금 울산구치소에서 가장 뜨거운 동호회다. 그중에는 황정목 교위도 있었다. 울산구치소는 전국에 10명뿐인 CERT(교정긴급대응팀)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황정목 교위는 2023년 APLC(Asian Prisons Lockdown Challenge)에 출전해 장애물 부문에 입상한 것을 계기로 CERT에 지원했고, 지금은 CERT 피지컬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테러와 폭동에 대응하는 최정예 팀, 그들의 훈련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 황정목 교위는 매일 뛰어서 출근하고 뛰어서 퇴근한다고 했다. 각 6km씩, 왕복 12km 거리다. 그 외에 크로스핏, 하이록스, 마라톤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유도와 태권도, 용무도 유단자이기도 하다.



8

“폭동,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생 시 직원과 수용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CERT는 강인한 체력뿐 아니라 상황 판단력, 위기 대응 능력을 비롯해서 전문 대응팀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을 합니다.” 45kg짜리 더미를 어깨에 메고 신념을 밝히는 한 교정공무원을 바라보며 원칙이 사람을 어디까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 만약을 위한 혹독한 오늘... 울산구치소에서 마주한 것들이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7



9

- 5 CERT 창립 멤버 황정목 교위의 오늘 훈련. 45kg짜리 더미를 메고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달렸다.
- 6 지금 울산구치소에서 가장 뜨거운 동호회 ‘헬스&크로스핏’의 점심시간.
- 7 문득 돌아본 풍경이 다정하기.
- 8 A동 초석에 울산구치소의 처음이 남아 있었다.
- 9 새로 지은 변호인 접견실, 더 많은 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확장 이전했다.



분류센터 10년의 성과와 과제

**2015년 강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자 출범한 분류센터가
설립 10년을 넘어섰다. 강력 범죄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분류센터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짚어봐야 할 때다.**

과거 수용자 처우 중심이던 교정 정책은 분류센터 신설 후 강력 범죄자 재범 관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분류센터는 ‘High Risk Management Center’, 즉 고위험 범죄자 관리센터로 불리며, 고위험군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2015년 11월 서울지방교정청에 설치·운영되다가 권역별 4개 지방교정청으로 확대됐다. 최초에는 전담 교도소 내에서 집금(集禁) 심사를 진행했으나, 2023년 고위험 수형자의 이송 및 수용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교정 사고 위험을 고려해 ‘출장 심사’를 도입했다. 또한 2024년 초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분류센터의 고위험군 수형자 ‘정밀분류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 분류센터에는 40여 명의 심리 전문가들이 정밀분류심사를 통해 과학적 선별 심사와 재범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살인, 성폭력, 폭력, 방화, 마약, 스토킹 등 강력 범죄자이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를 거쳐 위험성 수준을 평가한 후 대상자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용 중 치료와 재화를 통해 위험성을 낮추고, 범죄성이 낮아진 수형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가석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전히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수형자는 사회 복귀에 앞서 ‘석방 전 평가’를 수행, 재범과 밀접한 심리적 혹은 구조적 취약점이 재범에 미칠 위험성을 파악한다.

보호 요인(긍정 소견)은 접견 및 보관금 지원 등 보호 관계, 수용 생활 적응력을 평가하는 출역(出役)과 징벌 여부 그리고 생계 활동 유지를 위한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을 포함한다. 반면 위험 요인(부정 소견)으로는 가족 해체나 취약한 경제적 기반, 불투명한 취업 가능성, 부족한 지지 체계 및 사회적 자원, 그리고 무주택 등이 있다.

분류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자를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밀분류심사 과정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환경적 요인, 범죄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꼼꼼히 파악한다. 살아온 환경이나 가족 기능, 경제적 기반은 물론 청소년기 학업 중단, 그리고 결혼 생활과 직업 활동까지 두루 살펴본다. 범죄의 발생 배경과 동기는 물론, 촉발·강화 요인 등 범행 유발 요인도 정밀분류심사의 역할이다. 나아가 심리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 특성과 인내력, 문제 해결 능력, 음주 습관, 공격성, 도덕성 및 준법정신, 사회적 관계 등도 평가 대상이 된다.

범죄는 개인의 일탈적 선택만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범죄 행동 이전의 개인사나 과거 사연을 살펴야 하고, 상처받은 과거를 털어내어 범죄를 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밀분류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담에서 얻은 정보는 분석과 통합 과정을 거쳐 범죄 행동을 진단하고 위험성 관리 수준을 평가해, 재범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류센터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재범 예방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강력범죄심사과’로 확대·개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4세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이제는 제도적 응답을 할 때

최근 들어 강력 범죄의 저연령화, 동종 또는 이종 재범률 증가, 마약 범죄의 급속한 증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범죄 형태의 등장 등에 따라 범죄자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범죄 동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국내 최초 교정 처우를 위한 4세대 위험성 평가 도구인 ‘한국 수형자 다면적 평가 시스템(KIMAS: Korean Inmat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하여 2025년 4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기존 3세대 위험성 평가 도구가 정적 요인 및 범죄 유발 욕구와 반사회성 등 동적 요인으로 위험성을 예측하는 반면, 4세대 평가 도구는 위험성 예측을 넘어 맞춤형 처우까지 면밀하게 판단하여 치료와 재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평가 도구는 미국의 ‘COMPAS-Core(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Core)’를 모델링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살인, 폭력, 성범죄, 방화, 마약, 아동 학대, 스토킹 등 7개 범죄 유형별 위험성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교육 및 직업, 거주 환경, 사회적 관계, 범죄적 동료, 비행력, 범죄력, 범죄 내용, 범죄 피해, 음주 및 약물 문제, 범죄적 사고, 범죄적 성격, 범죄적 행동, 시설 내 문제 행동, 시설 내 생활 태도, 정신 건강, 건강 고려 사항, 기타 고려 사항 등 18개의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위험성까지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다. 위험성 수준은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3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단계에는 통상적 수준의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높음’을 받은 수형자는 집중적인 수준의 처우를, ‘매우 높음’ 수형자에게는 적극적인 수준의 처우를 제시해 위험성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 분류센터가 신설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재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력 범죄 확산을 예방한다는 중대한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밀분류심사를 통해 도출한 위험성 평가는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대외적으로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대외 정보 공유 및 다기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법원의 양형 자료 통보, 교도소의 가석방 심사, 보호관찰소의 사회복귀 지원, 경찰서의 우범자 관리 등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과 ‘고위험군 출소자 관계 기관 정보 공유’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재범 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을 명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류센터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재범 예방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강력범죄심사과’로 확대·개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여름 길들이기

뜨거운 계절도 결국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이 견디기 힘든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여름이 오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지면 정신과 병동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정신과 병원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외딴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일했던 곳들도 산 중턱이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논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웠다. 특히 여름 한낮에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터라 병동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환자들을 볼 때면 보는 내가 다 숨이 턱 막히고 못 견디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오래된 시설이라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 나기 일쑤였다. 그런 날이면 병동 전체가 거대한 찜질방처럼 습하고 더운 열기로 가득했다. 문득 ‘여름 징역보다 겨울 징역이 낫다’던 신영복 선생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겨울 징역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일이라면, 여름 징역에서 옆 사람은 그저 36.5℃의 열덩어리일 뿐이고, 그래서 서로가 증오의 대상이 된다던...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든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그가 출소하던 해인 1988년에 출간된 책이니, 지금과는 수용 환경이 많이 다를 것이나, 모르는 사람과 몸을 맞대야 하는 좁은 교정시설에서 옆 사람이 내뿜는 체온이 그 자체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는 여름 징역에 대한 묘사를 보면, 사람 냄새와 더운 기운이 섞인 병동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환자들은 그 숨 막히는 공간을 잘 버텨내고 있었다. 에어컨 바람 없이 겨우 선풍기 한 대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이런 곳에서조차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서 덜 불안하고 좋다”며 배시시 웃던 환자들의 해맑은 얼굴이 생각난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타인의 존재가 주는 위로의 정체가 사뭇 궁금했다.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힘은 무엇인가 신기하기도 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도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쉽게 지치는 날씨인데, 하물며 사방이 닫힌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수용자들도 힘들 것이며, 그들을 묵묵히 보살피는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높은 온도와 습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인내심을 갉아먹고, 사소한 자극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만든다. 폭염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토록 흔들어놓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계절을 버텨내야 할까?

답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관계에 있다. 겨울의 관계가 온기를 나누기 위해 밀착하는 법이라면, 여름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 서로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몸과 몸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예민함을 날씨 탓으로 이해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심리적 거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려와 더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뇌가 주변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돕는 작고 반복적인 루틴이다. 정해진 시간에 건네는 인사, 짧은 안부,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일상적인 절차들은 곤두선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서로를 예측 가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주변의 모든 것이 펄펄 끓어 넘치더라도 우리가 늘 해오던 규칙적인 일상이 유지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낀다. 서로를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존재로 느끼는 감각, 그것이 무더위라는 스트레스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완충 장치가 된다.

여름은 덥고 습하며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뜨거운 계절도 결국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신영복 선생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상처가 먼저이고 깨달음은 뒤에 온다. 어쩌면 여름은 그 깨달음을 위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가혹한 계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이번 여름의 교정시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과장, 사회정신과장으로 5년간 일했다.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를 썼다. 지금은 아몬드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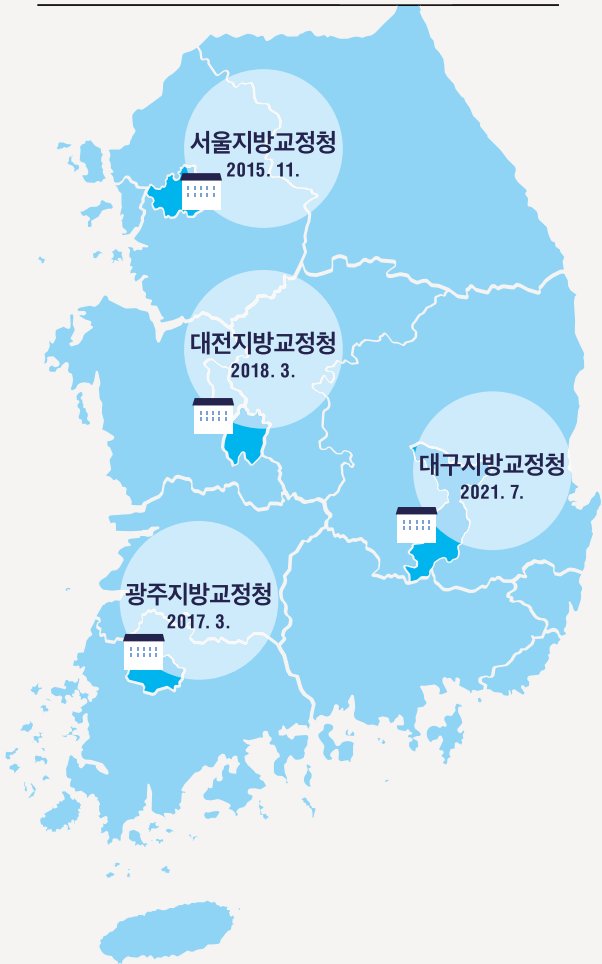
데이터로 본 분류센터: 과학적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발자취

어느덧 설립 10년을 넘어선 분류센터는 지금, 더 낮은 재범률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분류센터 설치 현황

미결 수용자의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 등급을 결정하고,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수형자는 수형 생활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한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는 ‘분류조사’와 인성·지능·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는 ‘분류검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류심사를 통해 처우 등급을 산정하여 시설 및 계호 정도, 작업 종류 등을 구분하고 있다. 또 수형 기간 중 정기·부정기 재심사를 거치며,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 등급을 조정한다.

교정본부는 2015년 서울지방법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신설하면서 분류심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처우 중심’에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관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분류센터는 이후 각 지방교정청으로 확대, 현재 총 4개 분류센터에서 여러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 정밀분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범죄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4세대 위험성 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성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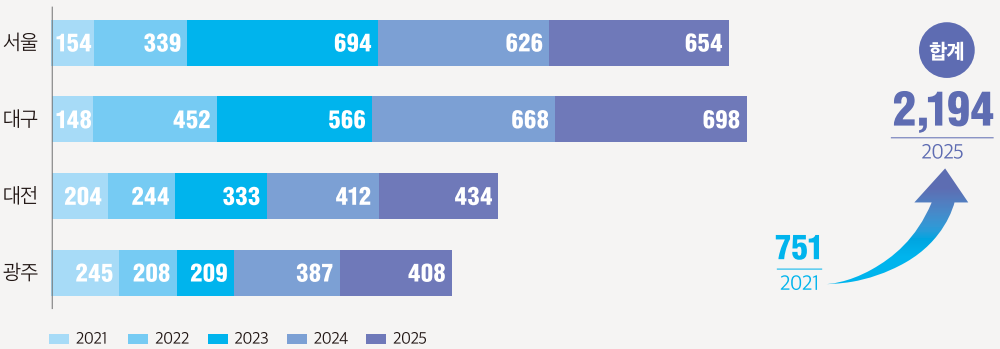


수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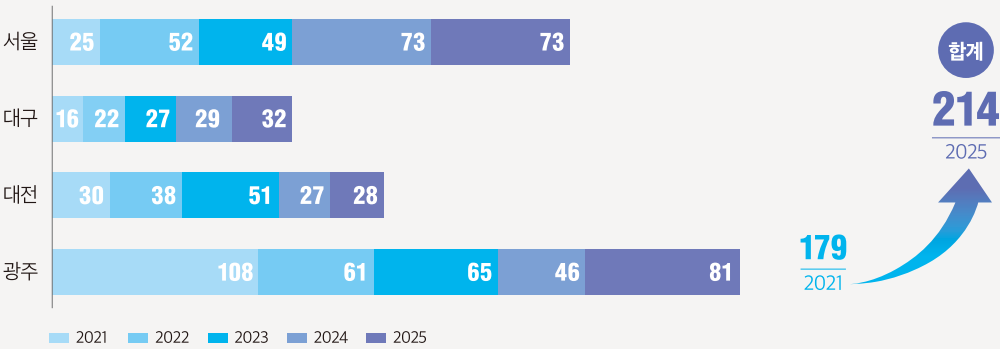
분류센터별 정밀분류심사 실적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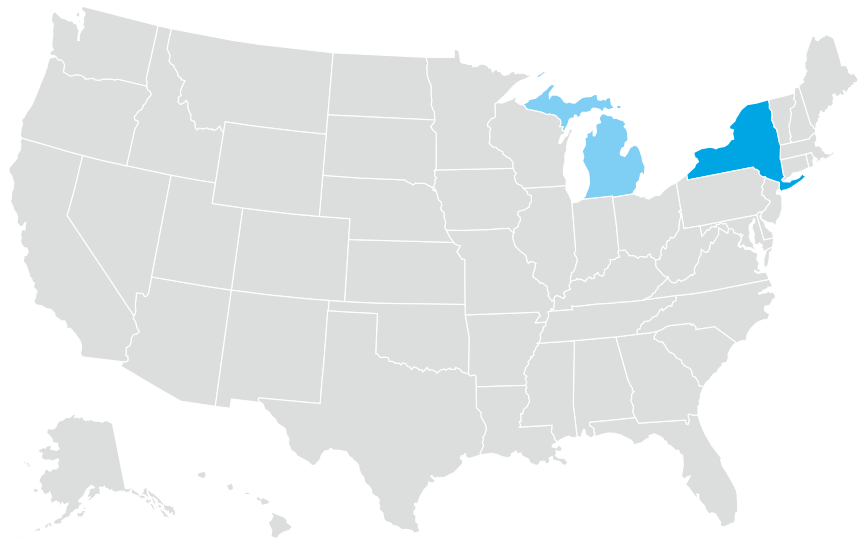


분류센터별 석방 전 평가 실적

단위: 건



🌐 **글로벌 교정 트렌드 리포트**



미국

New York

교도관과 간호사에게 오물 던진 수용자, 유죄 판결

미국 뉴욕주 어번교도소에서 교도관과 간호사에게 소변을 던진 수용자 레바 머레이(Levar Murray, 48세)가 ‘수용자에 의한 직원 괴롭힘’ 죄를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머레이는 이번 범죄로 인해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전망이다.

출처 『Correction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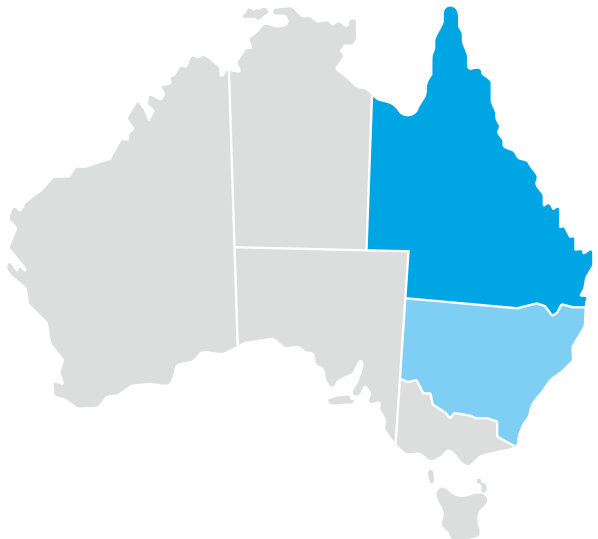
Michigan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도관 폭행 사건 증가

미국 미시간주 전역의 교도소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교도관 폭행, 무기 반입, 폭탄 테러 위협 등 치안 공백을 노린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시간교정조합(MCO)은 인력 부족으로 감시 초소가 비는 틈을 타 고위험 수용자들의 돌출 행동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은 감시가 느슨해지면 교도소를 서로 폭행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서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출처 『Correctional News』

급변하는 글로벌 교정 환경 속, 주목해야 할 현장 소식들.
세계 교정행정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호주

Queensland

드론 이용한 밀수품 반입 시도, 교도관들에게 덜미

지난 5월 17일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 위치한 타운스빌교도소에서 100만 호주 달러(약 9억 원) 상당의 밀수품을 실어 나르던 드론이 교도관들에게 적발됐다. 순찰 중이던 교도관들이 마약과 주사기, 휴대폰 등을 싣고 불시착한 드론을 발견한 것. 퀸즐랜드교정청(QCS)은 “불법 물품 반입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교정시설 상공에서 드론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퀸즐랜드교정청 홈페이지

New South Wales

호주 최대 교도소 “정신건강 분야 인력 부족, 위험 수준”

호주 최대 규모 교도소인 클래런스교정센터가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감사 결과로, 클래런스교정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전문 상담사를 만나기까지는 3일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는 50일 이상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 당시 수용 인원은 약 1,300명에 달했으나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는 1.6명뿐이었으며, 이 중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는 1명뿐이었다.

출처 뉴사우스웨일스교정청 홈페이지

“AI와 같이 일하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안양교도소 박건규 교사에게 묻다

올해로 서른한 살, 박건규 교사에게 AI는 도전하는 삶의 든든한 지원자다.
맨 앞자리는 아닐지라도 언제나 곁에 둘 수 있는.

2026년은 교정본부 무도인들에게 기억할 만한 해다.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1949년 첫 회를 치른 이래, 이 대회는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며 조직 화합의 장으로 기능했다. 2019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춤」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내년을 기약하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기다림은 7년 동안 이어졌고, 올해 드디어 뜨겁게 부활했다. 7년의 시간은 교도관 무도대회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확실한 건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최우수 응원상은 안양교도소가 차지했는데, 응원의 중심이었던 깃발의 디자이너는 다름 아닌 AI였다. “승부는 단 한 번의 칼끝에서 갈린다!” “기세로 압도하고, 한 번에 끝낸다!” 망설임 없이 검을 내리치는 두 검사(劍士)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렬한 문구, 안양교도소의 깃발은 고만고만한 구호들 사이에서 압도적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깃발의 제작을 AI에 의뢰한 이는 박건규 교사다. 1995년생, 2020년 입직했으며, 첫 배령지인 안양교도소에서 7년째 근무 중이다. 지금은 총무과 소속이지만 박건규 교사는 한때 검도선수를 꿈꿨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았던 그는 돌연 진로를 전환해 국어교육과에 진학했다. 교정공무원 입직 후 커리어도 이에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야간부 근무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를 더 잘 활용할 길이 있지 않을까?” 그 길로 CRPT(기동순찰대)에 지원했고 2년 7개월여 근무 후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사경으로 근무하면서 교정본부장 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안양교도소 총무과의 스마트한 막내로 발령받았다. 수사 정보 교과 시험에 합격한 직후였다. 마치 끝없는 도전의 연속 같은 기록, 무엇이 그에게 불을 지피고 있는 걸까? 직접 만나본 박건규 교사는 시종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즐거움’을 말했다.

업무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생각, 어쩌다 하게 됐나요?

저에게는 총무과 업무가 낯설었어요. CRPT와 특사경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문서 작성 업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행사를 기획할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계정을 가지고 있던 챗GPT에 들어가봤어요. 계정은 특사경 시절에 만들었어요. 송치할 만한 건인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같은 걸 물어봤는데 그때는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저는 법률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새침하게 거절했던 걸로 기억해요. 고작 1~2년이 지났을 뿐인데 챗GPT가 꽤나 쓸 만해졌더라고요.

AI를 활용한 첫 번째 업무를 기억하나요?

첫 번째 업무이자 지금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일은 퇴임식 준비예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게 궁금했어요. 잘 해내고 싶었고요. 그때 AI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였던 것 같아요. 퇴직자의 인생을 압축한 영상은 퇴임식의 꽃이거든요. 전달받은 사진들로 짧은 영상을 만드는 건데, 보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궁금했어요. 그날의 주인공에게도, 참석자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날 배포하는 문서를 어떤 꽃으로 장식할지도 AI와 상의했죠. 흔한 카네이션 대신 그분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꽃이었으면 했거든요. 노란색 꽃이었는데 배경에 묻혀서 잘 안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그사이 활용 범위가 넓어졌을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소에 손님이 방문하시거든요. 이 소식을 전자 안내판에 실었는데, 방금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AI를 활용해서요. 이런 게 시물을 비롯해서 현수막, 응원 도구 등 행사 준비물은 대부분 AI와 함께 제작해요.





안양교도소에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최우수 응원상을 안겨준 깃발들. 디자인은 챗GPT, 크리에이터는 박건규다. AI와 함께 일한 1년 6개월에 대한 박건규 교사의 후기는 분명하다. “종종 싸우지만 대부분 사이 좋은 동료예요.”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최우수 응원상을 받았잖아요. AI의 활약이 상당했지만 AI 혼자 한 일이 아니죠. AI 트레이닝 비법이 있다면요?

트레이닝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될 때까지 시킨다’예요. 지금 널리 쓰이는 AI는 결국 ‘거대 언어 기반’ 모델이잖아요.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켜요. AI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프롬프트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느덧 일상어도 잘 알아듣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해요. 무도대회 응원 도구를 만들 때 제가 AI에 했던 요청은 단순했어요. “우리 선수를 강한 모습으로 그려줘.” “기세가 살아 있으면 좋겠어.” ‘AI 만능’을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활용할수록 디자인이나 문구 제안은 AI에 시킬 수 있지만, 방향성은 사람의 몫이라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두 번째 깃발은 미국 러시모어국립공원(미국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주요 단계를 상징하는 대통령 4명의 모습을 새긴 바위 산)의 모습을 차용한 건데요. 그 아이디어는 오롯이 저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담고 싶다는 마음이 AI에 있을 리 없잖아요. 즉 트레이닝의 핵심은 자기 주도, 그리고 겁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의 AI 활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조사 같은 단순·반복 업무에 활용한다”는 사례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박건규 교사의 AI 활용법은 전혀 달라서 놀랐어요.

저희 일의 특성상 보고서 작성을 AI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료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생성하는 현상)은 항상 경계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AI는 상당히 든든한 동료예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다는 점에서 그래요.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서도 AI와 대화를 나눴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머릿속이 정리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사실 일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잖아요. 무르익지 않은 아이디어를 꺼내 놓고 토론을 벌이기에요. AI만 한 상대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아무 말이나 해도 흥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돕겠다는 마음가짐도 잃지 않아요. 저는 지금 총무과에 있지만 아직도 야근부 근무 시절을 종종 생각해요. 혼자서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무력감이 상당했어요. 이럴 때 불쑥 찾아가 흥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이 그 친구가 내 사정을 흔히 알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AI가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은 돼요.

챗GPT 외에 새롭게 시도 중이거나 활용해보고 싶은 AI, 또는 적용하고 싶은 업무가 있을까요?

이번 무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수노(SUNO)를 처음 써봤어요.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주는 음악 제작 AI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응원가를 만들었거든요. 영상과 비주얼 작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캔바(Canva)도 공부 중이에요. 포스터나 PPT, 카드뉴스, 영상까지 활용 범위가 넓더라고요. 조금해지지는 않으려고요. 맡은 업무에 필요한 플랫폼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저도 차츰 성장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 AI 바람을 일으켰다고 들었어요. 관성보다 도전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인간 박건규의 지향점일까요?

제가 바람을 일으켰다고보다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도전은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에요. 특사경에 있을 때도 승치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승치가 되겠어?’ 하는 시선으로 미뤄졌던 사건들에도 과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직 이후 늘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 상사들 중에 “하지 마라”고 말리는 분이 없었어요. 늘 “한 번 해봐라” 말씀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고요. 그분들 덕분에 부족한 능력으로 상도 받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도 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건규 교사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요?

다시 수사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임하고 싶어요. 교정기관 내 범죄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거든요. 특사경이 대처하고 있지만 범죄 트렌드가 변화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후배들에게 수사 기법을 알려주고, 특사경의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목표는 다음 교도관 무도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겁니다.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 교도관의 실력을 보여주고도 싶고요. 선수 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련하고 있거든요.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정부과천청사를 찾아온 녹음 아래서.
왼쪽부터 이정은 교감, 정한성 교사, 권용민 교사, 이우정 교위, 박영식 교감.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에 가다

그들이 처벌보다 재범 방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존재했다. 그들은 오늘도 ‘어떻게’를 붙들고 싸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눈을 돌리는 날이 늘었다. ‘속보’ 태그에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누르면서도 디테일은 차마 보지 못한다. 인류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 참담함,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엄습한다. 분류센터는 범죄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탄생했다. “2015년 11월 서울남부구치소 한 컨에서 출발했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올해로 분류 업무 35년 차를 맞은 이정은 교감이 기억하는 분류센터의 시작은 조심스러웠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였으며 ‘처벌’이 아닌 ‘처우’를 고민하는 조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 채운 10년을 막 지난 지금, 분류센터는 ‘구금’에서 ‘교화’로 이동한 교정행정의 시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여전히 낯선 분류센터의 역할은 ‘고위험군 범죄자의 정밀분류심사’이다. 살인·방화·폭력·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 마약 사범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에 가담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분류심사는 수용 관리의 첫 단계로, 분류센터 이전에도 엄연히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분류센터가 개청한 이유는 심사의 대상이 ‘고위험군 범죄자’라는 데 있다. “분류센터의 일은 재범 위험률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 또한 언젠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니까요.” 평가분석팀 권용민 교사는 ‘재범 위험’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분류센터는 4개 지방교정청에 각각 설치돼 있다.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는 그들의 만형으로, 지난 10년의 역사가 오롯이 축적돼 있다.

Part 1

재범 위험률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고위험군 범죄자의 정밀분류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 그 답을 찾는 일의 출발점은 역시 사람, 인적 자원에 있을 것이다. 평가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은 교감은 1991년, 지금은 사라진 분류직렬로 입직했다. 박영식 교감의 입직 동기는 ‘사회’였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교정시설에 갇힌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데 마음이 갔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내가 얼마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어요.” 평가분석팀 권용민 교사의 입직 과정은 조금 독특하다. 컴퓨터공학 전공 후 10년간 프로그래머로 살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임상심리의 세계로 들어왔고, 이후 교정직렬 경력공채에 지원해 교정공무원이 됐다. 그는 대학원에서 하던 공부를 입직 후에도 이어가 끝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우정 교위의 전문 분야는 ‘중독’이다. 이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갖춘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해

중독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정밀분류심사의 1차 관문인 대상자 선정을 맡고 있는 정한성 교사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무엇이 그들을 분류센터로 이끌었을까?

“저희 일에 ‘정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 분류심사는 나날이 발전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IMAS(Korea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System, 한국 수형자 다면적 평가)를 비롯해 체계적 분류심사를 위한 평가 도구도 많이 개발돼 있고요. 저희는 평가 도구가 내놓은 분석 결과, 그 너머를 봐야 해요. 상담을 통해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을 비롯해 수형자를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정은 교감

“저는 2024년에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에 왔어요. 그 전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심리상담에 관심이 생긴 건 결혼 이후예요. 엄마가 되고 보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수형자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됐어요. 중독심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비슷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크게 늘고 있었잖아요. 마약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으로 인한 범죄 양상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우정 교위

“저는 개별 처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범죄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주느냐, 왜 공부를 가르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저희 일의 목표는 그들의 재범을 막는 데 있어요. 개별 처우 계획은 재범의 원인을 제거하는 출발선이에요. 직장을 못 구해서 절도를 했다면 직업 훈련을 시키고, 정신질환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치료를 해줘야 하고, 학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했다면 검정고시를 치르게 도와야 하죠.”

권용민 교사

Part 2

데이터 뒤에 숨은 왜곡까지 볼 수 있다면

진심과 노력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이어진다. 서울지방법정청 분류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석방 전 심사를 포함해 654건의 정밀분류심사를 진행했다. 평가분석팀 구성원이 8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그 때문일까? 분류센터 직원이 갖춰야 할 덕목을 물었을 때, 이정은 교감은 “치치지 않는 마음”을 꼽았다. ‘전문성’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상담 스킬은 중요해요. 고위험 범죄자 특성상 평가 도구가 내놓은 분석 결과가 튀는 경우가 잦아요. 그러면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문항을 확인해서 다시 묻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는 수형자가 많지 않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유가 무엇이든 잘 물어서 진실을 끌어내야 해요. 분석 능력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권용민 교사

“저희가 ‘긍정적인 왜곡’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어요. 수형자들은 평가 도구를 대할 때나 저희와 상담을 할 때나 기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래프들이 정상으로 나와요. 이 상태라면 이런 중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죠. 상담 과정에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걸 잘 수행해야 좋은 상담자인 거죠.”

이우정 교위

‘왜곡’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 짓는 심층면접에서도 핵심 키워드다. 가석방 신청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이렇게 두 단계였던 가석방 과정은 5년여 전 한층 엄격해졌다. 지금은 교정기관에서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교정본부 분류심사과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분류센터 담당자가 가석방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수형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필요시 다각도로 심리검사를 진행하며, 때로는 가족을 비롯한 수형자의 지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심층면접관의 판단이 가석방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 박영식 교감은 심층면접에 나설 때, 맨 앞에 두는 마음은 ‘의심’이라고 했다.

“심층면접은 업무 효능감도, 부담감도 큰 편입니다. 특히 무기수나 장기수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출소 후 재범이 일어나면 그 파장이 작지 않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지표상에 좋게 보이지 않아도 만나 보니 새로운 삶의 의지가 확고하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면 보고서 방향도 가석방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지표가 좋더라도 신청을 반려해야죠.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박영식 교감

Part 3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의 가치: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확인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구성원들의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가 베테랑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 공부는 당연했고, 서로를 선배나 후배가 아닌 독립된 전문가로 인정하는 문화가 그곳에 있었다. 요즘 후배들에 대한 생

각을 묻는 질문에 박영식 교감은 당장 권용민 교사가 최근 만든 프로그램을 칭찬했다. “분류심사나 가석방 업무도 전산화가 상당히 이뤄졌어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업무에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실 평가 도구 개발은 분류센터의 몫은 아니다. 권용민 교사는 왜 개발에 나섰을까?

“상담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 있어요. 심층 분석한 내용 외에 기초적인 관찰 항목들을 적어야 해요. 상담하는 동안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눈맞춤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늘 하는 일인데도 상담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죠.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셔서 기뻐했습니다. 사실 항상 그러세요. 새로운 제안도 선임견 없이 받아들여주시죠.”

권용민 교사

이정은 교감은 행정기획팀을 ‘샤롯데’했다. “KIMAS 사례회의를 멋지게 준비”해줬다는 것. 전국 4개 분류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자리는 과학적 분류심사의 초석이 됐다. 작년에는 서울지방교정청이 주관했고, 올 하반기에는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칭찬한 선배에게 정한성 교사는 포부로 화답했다.

“분류센터 행정기획팀에서 보낸 날들이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임상심리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지만 분류 업무만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상담 능력은 좋은 교정공무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일하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더 많이 배워서 수용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교화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정한성 교사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어떻게’를 붙들고 싸우고 있다. 오늘이 바꿀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이우정 교위의 다짐에서 찾았다.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면 수형자에게 편견을 갖기 쉬워요. 그 사람 안 바뀐다, 희망 갖지 마라, 그러면 상처 받는다... 저도 많이 들은 말이예요. 그런데 분류센터에서는 그런 마음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수형자의 말과 서류 너머에 있는 ‘진짜’를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 마음이 제 개별 처우 계획의 출발선이예요.”

이우정 교위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교화에 추진력 더하기!

나의 상담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정은 교감

상담하면서 저는 추상적인 말은 줄이고, 교정기관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려줍니다. 수형자가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박영식 교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순간까지 질문할 것. 데이터나 서류에 적힌 히스토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상이면 이런 문제로 들 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서 정확한 판단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예민 교사

최대한 담담할 것. 상담이 깊어지면 눈물을 보이는 수형자도, 반대로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수형자도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 감정의 동요 없이 대하려고 노력해요. 선부른 위로나 친밀감을 보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수용을 앞두고 증폭된 불안감이 잠잠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우정 교위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한 마디라도 건넬 수 있게해주세요.” 수형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가 수형자에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정한성 교사

아직 상담 업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식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중이에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당당한 교정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순천교도소 ‘상호존중의 날’을 소개합니다!

순천교도소에서 매월 11일은 ‘상호존중의 날’이다. 두 개의 1 사이에 등가기호(=)를 넣어 ‘존중’의 진짜 의미를 담아낸 것. 주말을 피해 13일에 열린 2026년 7월 상호존중의 날, 시원한 커피의 지원 사격으로 2배 더 훈훈했던 현장 공개!

직업훈련과

첫째,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먼저 인사하기. 둘째, ‘야’ ‘넌’가 아니라 ‘김 계장님’ ‘김 주임님’으로 부르기. 셋째,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이상은 순천교도소 ‘상호존중의 날’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이다. 순천교도소가 매월 11일을 특별하게 보낸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날을 기획한 이유는 하나,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존중되는 직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것! 다른 어느 날도 아닌 11일로 정한 것도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리마인드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모두가 온전한 한 사람(1)이잖아요. ‘1=1’이라는 수식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은 거죠.” 총무과 신광식 교위가 밝힌 11일의 비밀이다.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이 뼈대 있는 철학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지난 7월 13일 순천교도소에는 여김 없이 ‘상호존중의 날’이 밝았다(11일이 주말일 때는 다가오는 평일로 변경한다). 캠페인에서 가장 피해야 할 한 가지는 ‘지루함’, 이를 타파하기 위해 순천교도소는 매월 테마를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월의 테마는 ‘마니또’로, 각자가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는 날이다. 5월의 테마는 ‘환경미화’. 언뜻 뻔할 것 같지만, 내 자리가 아니라 동료의 자리를 정리하는 게 그날의 활동이다.

특별사법경찰대

이달의 칭찬직원

칭찬을 잘한 사람과 칭찬받아 마땅한 직원을 뽑아, 부서원(또는 팀원) 모두의 이름으로 상장을 전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안정태 교사

분류심사과
황제현 교사

【교정】의 ‘만나다 잇다’ 코너가 응원합니다!

상호존중의 날 커피

순천교도소

상호존중의 날 커피

순천교도소

그렇다면 2026년 7월의 테마는? ‘동료와 상호존중 커피 한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이야기를 차 한잔의 힘을 빌려 나누는 자리다. 그리고 그날의 훈훈한 공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동료들과 공유됐다. 이날 무더위 속에서 ‘상호존중의 날’을 맞이한 직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으니, 다음 아님 『교정』이 보낸 커피트럭! 혈관까지 시원해지는 아이스 커피부터 상큼한 에이드까지, 여름 맞춤 메뉴로 가득했던 커피트럭은 직원들에게 오아시스가 아니었을까? 최세진 교도는 “덕분에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졌다. 이런 게 바로 소확행!”이라고 소감을 보내왔고, 복지과 우창호 교사는 “자몽에이드 한 잔에 후텁지근한 공기가 날아갔다”며 “동료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그날을 기억했다. 이 멋진 하루에 『교정』도 응원을 보낸다.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을 가꿔나가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구성 편집부 사진 순천교도소

커피트럭 보내드려요!

『교정』의 커피트럭 응원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특별한 행사를 앞둔 교정기관에서는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만능 교도관

「2025 교정본부 홍보 공모전」

웹툰 부문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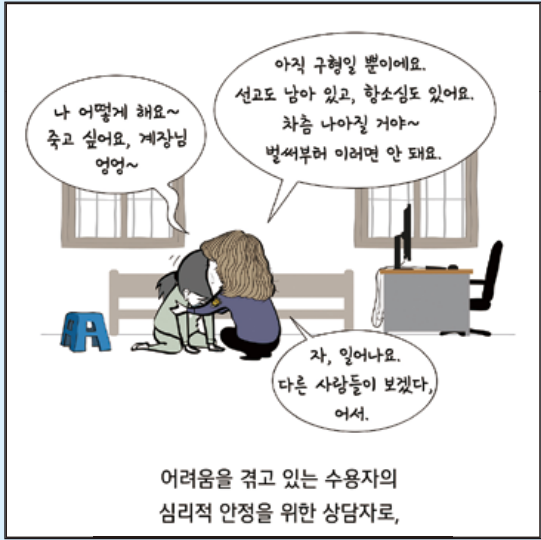
‘교도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수용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의료, 소방, 경찰 등의 필수 업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자로,



근로 정신 함양을 위한 작업 및 기술 교육 담당관으로,



재범 방지 교육 강사, 인성 교육 강사로서의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교도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재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끈!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억대급’이라는 여름,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날씨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어이 행복을
찾아내는 교정공무원들의 일상을 전합니다.



이한룡 교감
교정본부



#교정악대 #밤바밤

7년 만에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교정악대도 함께했습니다. 교정악대는 언제나 교정 행사를 빛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교정악대 파이팅!

고명국 교위
천안교도소



#운동하는 #멋진_교도관

수용자와 대면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매일 퇴근 후 운동으로 풀고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니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노서정 교위
통영구치소



#출근길이 #바닷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이 있는 도시 통영! 통영구치소 출근길은 항상 바다와 마주합니다. 직원들은 농담 삼아 “정문 코앞 이 바다”라고 할 정도예요. 이 낭만적인 출근길을 교정인들과 공유합니다! 모두의 여름이 더 행복하기를 기원할게요.

남궁동진 교위
목포교도소



#가족의_힘 #사랑해

‘교정공무원은 녹록치 않은 직업이다.’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행운인지요. 저에게 ‘슬기로운 교정생활’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Your Story

‘소중한 순간’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동료 자랑, 나의 취미, 도전의 순간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장 내외의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께는 『교정』이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보낼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찰나의 낭만이 일상의 영원으로, 군산을 걷다

때로는 사람이 봄비는 명소보다 도시를 아끼는 사람의 일상을 따라 걷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된다. 물빛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일상이 스민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행. 군산교도소 위정민 교도와 하루를 보내고 나니 군산은 여행지를 넘어 살아보고 싶은 도시에 가까워졌다.



“군산은 저한테 <8월의 크리스마스>였어요.”

2021년 여름, 우연히 본 영화 한 편이 마음을 붙잡았다. 오래된 사진관과 조용한 골목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영화가 개봉한 해에 태어났기 때문일까, 빛바랜 풍경마저도 눈부셔 보였기 때문일까. 위정민 교도는 스스로를 ‘지독한 낭만주의자’라고 소개하며 웃었지만, 영화 속 군산에는 분명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 영화 속 도시는 현실이 됐다. 운명처럼 군산교도소로 첫 발령을 받은 것이다. 위정민 교도는 20년 넘게 살아온 고향 영광을 떠나 막연한 설렘을 안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시골에서 자란 제게 군산은 대도시였어요. 신상 과자가 바로 들어오는 대형 마트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심야 영화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일상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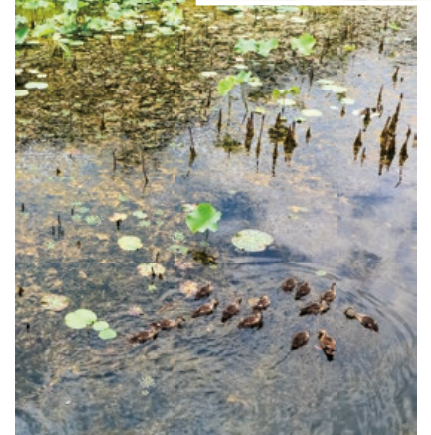
그렇게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4년 반, 군산은 이제 제2의 고향이다. “처음으로 혼자 결정도 내려보고, 그 결정에 책임도 져보면서 독립심이 생겼습니다. 영광이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면, 군산은 제가 어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예요.” 그는 군산이 여행보다 생활을 통해 좋아지는 도시라고 말했다. 퇴근길에 가볍게 산책을 즐기고, 휴일이면 단골 식당을 찾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았더니 어느새 정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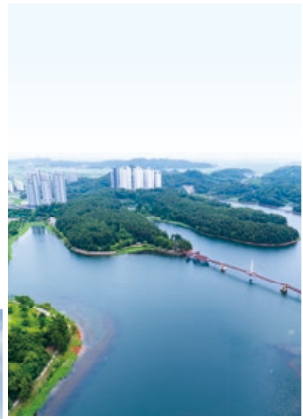
오늘 코스도 그런 마음에서 골랐다. 군산 토박이 동료들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껴온 공간들이었다. “제가 느낀

군산의 매력은 음식이에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평균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맛집을 물어보면 신중해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군산시청 인근의 ‘버거랩 키친후가’. 군산 앞바다 꽃새우 등 로컬 식재료를 사용한 정성스러운 한 끼, 그리고 우드톤의 힙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동료들과 매주 이곳을 찾다는 위정민 교도의 추천은 새우폭탄버거와 빅마우스 치킨버거였다. 갓 튀겨낸 생감자튀김까지 곁들이니 한 끼가 더욱 든든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냅킨에 적힌 한 문장이었다. “흔적은 닦고, 군산의 여운은 남기세요.” 위 교도는 군산에는 이런 공간이 많다고 말했다. 화려하게 이름난 곳보다 저마다의 색을 오래 지켜온 가게들.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되고, 군산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풍경이 된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에는 은파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예로부터 ‘물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은 군산에서도 손꼽히는 호수공원이다. 농업용 저수지였던 미제지(米堤池)는 대규모 공원과 원유지가 들어서며 ‘은빛 물결’이라는 뜻의 ‘은파(銀波)’라는 이름을 얻었다. “집에서 10분 거리라 퇴근길에 자주 들러요. 생각이 많아질 때면 꼭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군산에 오기 전에는 석촌호수보다 아름다운 호수는 국내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은파호수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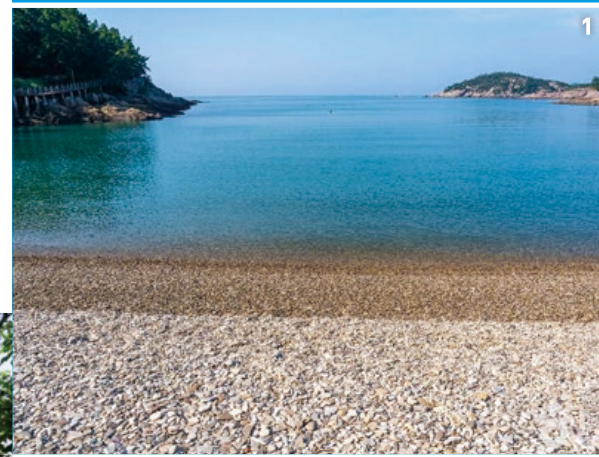




여행자는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찰나도
영원처럼 이어진다.
누군가의 일상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 군산의 풍경이
애뜻해질 것이다.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들지만 은빛 물결만은 한결같은 곳. 한여름 햇살이 호수 위로 부서지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윤슬이 잔잔하게 일렁였다. 여름을 알리는 연꽃도 호숫가에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호수를 따라 걷는 사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새 위정민 교도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부볐다. 군산 사람들이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조깅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학생,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 풍경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에도 여름 오후의 평화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돈 뒤에는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발걸음이 이어졌다. 통창 너머로는 조금 전 걸었던 호수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잔잔한 물결은 여전히 햇살을 머금고 있었고,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아드는 라떼 한 잔은 여름 오후의 시간을 느리게 흘러보내기에 충분했다.

걸었던 여름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 위정민 교도는 군산의 매콤한 맛을 보여주겠다며 앞장섰다. 그가 추천한 곳은 나운동에 위치한 '양푼왕갈비 감자탕나라'. 큼지막한 양푼에 돼지갈비가 자작하게 끓고, 테이블 위에는 푸짐한 밀반찬이 빈틈없이 놓였다. "제가 한식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파김치를 넣어 매콤하게 끓여 먹는 양푼갈비가 참 매력적이에요." 화려한 미식을 경험한다기보다, 음식을 나누며 함께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여행의 마지막 기억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된다는 점도, 어쩌면 군산다운 하루였다. 여행은 결국 얼마나 많은 명소를 둘러봤는지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로 기억된다. 군산이 궁금해진 계기는 우연히 본 영화 한 편이었지만, 지금 위정민 교도를 이 도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영화 속 낭만뿐 아니다. 스스로 삶을 꾸려가며 어른이 되어간 시간, 그리고 그 과정을 느리게 품어준 공간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평범한 하루가 군산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었다. 여행자는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찰나도 영원처럼 이어진다. 누군가의 일상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 군산의 풍경이 애뜻해질 것이다.



Eat & Place

로컬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군산의 맛과 멋

① 옥돌 해변

군산 도심에서 서쪽으로 50분 남짓 달리면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 선유도에 닿는다.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품은 이곳에는 모래 대신 동글동글한 옥돌로 채워진 해변이 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옥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마음까지 맑아진다. 옥돌슈퍼도 빼놓을 수 없다. 바다를 향해 놓인 평상에 앉아 바지락라면이나 삼겹살을 맛보는 것도 추천한다.

② 버거랩 키친후가

10년 넘게 군산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제버거 맛집. 군산 앞바다 꽃새우를 활용한 새우폭탄버거와 직접 개발한 빅마우스 치킨버거가 대표 메뉴다. 버거 패티는 물론 피클과 꽃새우 시즈닝, 감자튀김까지 대부분의 메뉴를 직접 준비한다. 'Eat Good, Feel Good'이라는 가게 슬로건처럼 나무와 식물, 포스터가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도 매력적이다.



③ 양푼왕갈비 감자탕나라

군산에는 유난히 양푼갈비집이 많다. 그중에서도 이곳은 큼지막한 양푼에 갈비와 잘 익은 김치와 매콤한 파김치를 함께 넣어 자작하게 끓여 먹는 방식으로 사랑받는다. 가게 이름과 달리 감자탕은 없지만 족발, 닭발, 김치전, 계장 등 푸짐하게 차려지는 기본 반찬만으로도 군산의 넉넉한 인심을 짐작할 수 있다. 여행을 든든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 나운동과 미장동, 두 지점을 운영 중이라 동선에 맞게 찾기도 좋다.

④ 빈다이 군산은파점

전북 지역에만 있는 로컬 카페 브랜드. 이곳 군산은파점은 은파호수공원을 건다가 잠시 숨을 고르기 좋은 곳으로,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호수 풍경이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선물한다.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라떼를 특히 추천한다.



⑤ 로디드 아파트먼트 커피

은파호수공원 인근에서 감각적인 분위기를 찾는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빈티지한 타일 외벽과 초록 식물이 어우러진 외관은 오래된 주택을 떠올리게 하고, 내부는 우드 가구와 빈티지 소품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커피와 함께 다양한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데, 갓 구운 크루아상과 시즌 베이커리가 특히 인기다.

글 김혜원 사진 이용기, 버거랩 키친후가 인스타그램



GDP는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팍팍할까?

경제 성장 지표가 연일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 주머니도 그만큼 풍성해졌을까요? 성장은 한데 나는 왜 체감이 안될까요?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팔아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기저 효과를 누렸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덕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도 예상보다 2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에 힘입어 최근 발표되는 경제 성장 지표는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 주머니도 그만큼 풍성해졌을까요? 취직이 어렵기는 여전하고, 문 닫는 가게도 많습니다. 성장은 한데 나는 왜 체감이 안 될까요?

경제 상황을 한 번에 알고 싶다면 GDP!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백화점 판매액, 자동차 생산량, 교통량, 수출액, 실업률 등 많은 경제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개별 지표는 특정 분야의 상황은 보여주지만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내수는 좋아졌지만 생산도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기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개별 지표를 두루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 상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그 고민에서 개발된 것이 GDP입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국내총생산으로 불립니다.

GDP는 누가, 언제 만든 건가요?

GDP는 1929년 대공황의 산물입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확히 측정할 지표가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주가 등이었는데 이것으로는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어려웠죠.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미국 상무부의 요청을 받고 나라 전체의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GDP를 개발했습니다. 쿠즈네츠는 이 공로로 19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GDP는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 경제 측정 지표가 됐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경기현황조사』 2000년 1월호에서 “GDP: 20 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GDP가 뭔데요?

GDP란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GDP는 1년 혹은 분기(3개월) 기준으로 ‘일정 기간’ 측정합니다.

지난해에 생산한 제품은 지난해 GDP가 됩니다. ‘한 나라’는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자동차가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했다면, 그 경제 활동은 한국 GDP에 속합니다. 반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미국 GDP가 됩니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경우, 더 이상 한국 GDP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 이전은 국가의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역의 GDP도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경기도 GRDP가 됩니다. 국내에서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입니다. ‘새롭게 생산’은 새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만 GDP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신차는 GDP로 계산되지만, 3년 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한다면 GDP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 것만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사 노동, 자원봉사는 거래가 된 것이 아니므로 GDP가 아닙니다.

GDP는 어떻게 구하나요?

GDP는 한 나라에서 지출한 것을 모두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산한 것을 모두 더해도 됩니다. 아니면 번 소득(이윤)을 모두 더해도 됩니다. 어떻게 구하든 결과가 똑같아야 하는데요. 이를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공식은 ‘소비+투자+정부 지출+순 수출(수출-수입)’입니다. 민간에서 소비를 많이 하거나, 공장을 많이 짓거나,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GDP가 커집니다. 수출도 GDP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2026년 세계 GDP 순위

단위: 조 달러

1	미국	32.38
2	중국	20.85
3	독일	5.45
4	일본	4.38
5	영국	4.26
6	인도	4.15
7	프랑스	3.60
8	이탈리아	2.74
9	러시아	2.66
10	브라질	2.64
11	캐나다	2.51
12	호주	2.12
13	멕시코	2.12
14	스페인	2.09
15	대한민국	1.93
16	터키	1.64
17	인도네시아	1.54
18	네덜란드	1.45
19	사우디아라비아	1.39
20	스위스	1.15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년 4월 전망 기준

IMF는 지난 4월 발행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년 뒤인 2028년 4만695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지난해에 1인당 GDP 3만9,489달러를 기록했으며, IMF는 대만이 올해 4만 달러 벽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GDP가 높는데 부자 나라가 아니라고요?

GDP는 한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쓴 것을 모두 합한 것이므로 한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GDP는 커집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GDP가 큰 것은 이 때문이죠. GDP가 크다는 말은 결국 큰 경제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도 체격이 좋으면 타인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GDP가 크면 경제적으로 타국이 함부로 대하기 힘듭니다.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목소리도 커지죠. 일반적으로 체격이 좋으면 체력도 좋죠? GDP가 큰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일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체격은 좋지만 '저질 체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은 1인당 GDP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3,000달러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도의 1인당 GDP는 2,300달러에 그칩니다. 경제 외형은 커졌지만 아직은 선진 경제로 평가받기 힘든 이유입니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벨기에 등은 GDP는 낮지만, 1인당 GDP는 최상위권입니다. 체격은 작지만 체력만큼은 엄청난 국가들입니다.

1인당 GDP가 높으면 국민이 잘 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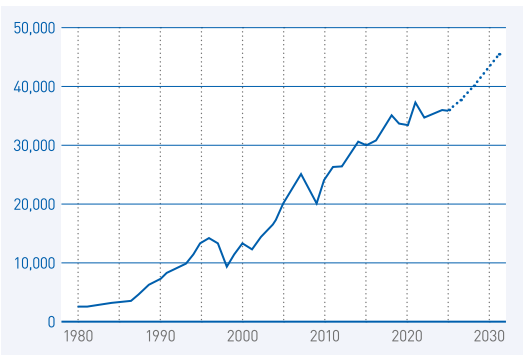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인당 GDP가 높으면 부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인당 GDP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의 쏠림이 있다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카타르, UAE 등 걸프 지역 산유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에 1인당 GDP가 7만~10만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부는 왕가에 집중돼 있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큼니다.

특히 GDP는 치명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질오염이 돼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쓰면 GDP가 올라가겠죠. 급증하는 범죄자를 수감하기 위해 감옥을 만들어도 증가합니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진압 장비를 구입해도 GDP는 올라갑니다. 가사 노동, 육아, 봉사 활동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 분담을 하는 것보다 도우미를 쓰고, 집밥을 해먹는 대신 외식을 하면 GDP가 올라갑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은 1968년 3월 캔자스대에서 한 연설에서 GDP에 대해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파괴될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추이(1980~2030년)

단위: 달러



GDP가 성장하면 내 삶도 나아질까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GDP는 경제 전체를 측정하는 지표로 여전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성장률이 높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대기업이나 일부 고소득층 쪽으로 '부의 쏠림'이 심하다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파른 성장은 물가 상승과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한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금리 인상은 예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산을 늘리는 기회이지만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삶을 더 쪼들리게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라 주식시장도 상승하겠지만 주식이 적거나 없는 서민들이라면 이 역시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경제의 고성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극단적인 쏠림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은 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배'입니다. 자유 경쟁을 통해 특정 분야에 부의 쏠림이 발생한다면,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걷고, 이를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를 지원하거나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1인당 GDP도 높지만 행복도도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적·국가적 성장이 국민 개개인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공유될 때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 27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을 비롯해,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써왔다.

성과와 실패 경험에서 나만의 자원 찾기

은퇴 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역량’이며, 그 역량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돼 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 줄 아는 게 없다”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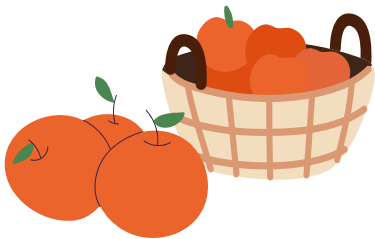
생각의 시선이 ‘결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만든 과정, 그 안에 담긴 자원을 못 보는 것이다. 자산의 가치는 최초 원가에 지금까지 투입한 자원을 더해서 계산한다. 개인에게 이를 적용하면 교육비와 훈련, 축적된 경험, 관계 자본까지 막대한 자원이 내재돼 있다. 이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자. 투자가 축적된 인생 후반부는 가치의 정점에 가까울 것이다.

“당신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보유한 부동산과 동산 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삶’에 초점을 맞추면 답은 달라져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삶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역량’이며, 그 역량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돼 있다. 살아온 시간의 길이만큼 정말 많은 숨은 역량, 지금부터 그 보물을 찾아보자.

성과 사례에서 찾는 다섯 가지 자원

역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①핵심 역량 ②보조 역량 ③의도적 준비 역량 ④관계 역량 ⑤의도적 배제 역량으로 나눠보면 추출이 편하다. ‘핵심 역량’은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뜻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핵심 역량을 만들어왔다.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조 역량’은 핵심 역량에 힘을 보태는 역량이다. 단독으로는 큰 경쟁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핵심 역량과 결합하면 쓸 만한 성과를 발휘한다. ‘의도적 준비 역량’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계 역량’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업무나 사회적 환경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관계 역량을 강화하면 보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업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도적 배제 역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단순히 무언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적 배제 과정이다. 다시 말해 해당 업무에 필요하지 않거나 포함시키면 안 되는 역량으로, 자신의 단점도 포함된다. 먼저 왼쪽에 다섯 개의 성공 사례를 적어보자. 그리고 각 사례에 해당되는 다섯 개의 역량을 적다 보면, 내가 가진 자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성과 사례에서 자원 찾기	성과 사례	핵심 역량	보조 역량	의도적 준비 역량	관계 역량	의도적 배제 역량

실패 사례에서 찾는 나만의 보물

흔히 역량은 성공 사례에서 찾는데,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발굴할 수 있다. 먼저 실패 사례를 적고 각 사례별로 ‘실패 이유’를 적는다. ‘실패 원인’은 실패 이유를 만든 근원으로 이것이 자신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완할 점’을 작성한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실패 사례에서 자원 찾기	실패 사례	실패 이유	실패 원인	보완할 점

작성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작성 후 반복해서 보면서 자신의 역량을 정리해 보자. 당신의 경험과 역력이 쌓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당신만의 자원이다. 퇴직 후라는 전장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당신만의 무기다.



최승영
(주)마스터피스 얼라이언스 및 은퇴 준비 유튜브 ‘유브랜드’의 대표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다. 2021년 코칭 기반 은퇴 준비서 『빨리 은퇴하라』에 이어 2025년 『경험과 경력에서 은퇴 자원 찾기』를 출간했다.

혹시 나도 불면증일까?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마음 돌봄 워크북 시리즈』 4편의 주제는 ‘수면’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로감이 느껴지나요? 이참에 내 잠의 퀄리티를 점검해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의학적으로는 ‘평일과 휴일에 자는 시간이 비슷하고, 낮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요. 보통은 6~9시간입니다. 잠의 기능은 일일에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핵심은 뇌와 몸의 ‘회복’이에요. 숙면 중에는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며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가 조절돼요.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자연히 업무 능력과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수면 부채’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잠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부족한 잠을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매일 1시간씩 잠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아무리 집중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Step 1 나는 얼마나 잘 자고 있을까?

불면 심각도 설문지(Insomnia Severity Index, ISI)

본 설문지는 최근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수면 상태와 이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칸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보통이다 2점	심하다 3점	매우 심하다 4점
① 잠들기가 어렵다	☐	☐	☐	☐	☐
② 자다가 자주 깬다	☐	☐	☐	☐	☐
③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	☐	☐	☐	☐	☐

② 현재 자신의 수면 패턴(수면 습관이나 질)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 ☐ 0점 : 매우 만족
- ☐ 1점 : 만족하는 편
- ☐ 2점 : 보통
- ☐ 3점 : 불만족스러운 편
- ☐ 4점 : 매우 불만족

③ 수면 문제가 일상을 얼마나 방해(피로감, 집중력·업무 수행력 저하 등)한다고 느끼나요?

- ☐ 0점 :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 ☐ 1점 : 약간 방해받는다
- ☐ 2점 :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
- ☐ 3점 : 많이 방해받는다
- ☐ 4점 : 매우 많이 방해받는다

④ 주변 사람들은 나의 수면 문제가 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린다고 생각할까요?

- ☐ 0점 :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 ☐ 1점 :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 ☐ 2점 : 어느 정도 눈치챈다
- ☐ 3점 : 제법 많이 우려한다
- ☐ 4점 :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⑤ 현재 겪고 있는 수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걱정되거나 괴로운가요?

- ☐ 0점 :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 ☐ 1점 : 아주 조금 걱정된다
- ☐ 2점 : 어느 정도 걱정된다
- ☐ 3점 : 상당히 많이 걱정된다
- ☐ 4점 : 매우 심각하게 괴롭고 걱정된다

나의 수면 점수는?	0~7점	현재 수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8~14점	약간의 불면 기운이 있습니다.
	15~21점	임상적인 불면증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2~28점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큼니다.

출처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Insomnia Severity Index

Step 2

열대야에도 꿀잠! 수면의 질 높이는 습관 5가지

참고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15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데 침대에 억지로 누워 있으면, ‘자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이는 불안으로 이어져 불면증을 강화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운 지 15~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조도가 낮은 공간에서 가벼운 일을 하다가 다시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들기를 추천합니다.

전날 몇 시간 잤든 기상 시간은 고정입니다

평일 내내 부족하게 자고 휴일에 오래 자는 방식은 잠을 보충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시차 적응을 반복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수면 시간 자체보다 자고 일어나는지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술은 숙면의 적! 꿀잠이 시급하다면 참아주세요

숙면을 위해 술을 마신다고요? 처음에는 술이 잠을 잘 자게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깊은 잠에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과음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은 잠들기 2시간 이전에 끝내야 해요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운동은 하고 싶은데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 걷기나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세요.

TV, 유튜브 시청은 잠들기 1시간 전까지만!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건 휴식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 짧은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는 건 최악의 습관! 이 시간 동안 뇌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마음나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리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 마음나래의 문을 두드리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교정본부 주요 소식

2026 07+08



2026. 06. 25.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과밀 수용 해소, 교정 혁신 이끌겠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 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직 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과밀 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수용 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넘비(Not in my backyard, 지역이기주의) 현상 극복을 위해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울러 교정청 신설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교정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으로, 교정미래혁신단은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최근 과밀 수용,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 방지 수요 확대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인권친화적 수용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06. 11. ~ 12.

수용 기록의 전문성 강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 기록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수용 기록의 당사자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수범·사고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6. 06. 12.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을 비롯해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든 경기가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해설과 진행을 맡아 현장감 있는 중계를 펼쳤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처음으로 개최, 올해로 55회를 맞이했다.



2026. 06. 17.

법무부장관과 법조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지난 6월 17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열린 이번 진단은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여성 수용자에 대한 맞춤형 교정·교화 정책 진단을 위해 이뤄졌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약 120%로, 정성호 장관은 이날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2026. 06. 18. ~ 19.

북한이탈주민 처우전담반 워크숍 실시

교정본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처우전담반 워크숍을 실시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특별점검팀장과 전국 교정기관 내 해당 전담반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실무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6. 06. 30.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회의 개최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2026년 상반기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대체복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에서 공익 업무를 하고 있는 병역 근무자로,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과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위원회는 반기마다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체복무자의 인권 현황을 살피고 심사 과정 등을 논의한다.



2026. 07. 14.

제3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교정청 신설 필요성 논의

지난 7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교정미래혁신단이 출범하면서 구체화된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 및 조직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으며, 외부 위원의 시선에서 교정을 바라보고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더 밝은 교정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노래로 전한 깊은 울림, 국립합창단 초청 「나눔음악회」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6월 30일 국립합창단을 초청해 「나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 가곡을 비롯해 뮤지컬 넘버, 영화 OST 등 서정적이고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으며 수준 높은 무대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남녀 수용자 179명이 참석했다.



인천구치소

SBS 「모닝와이드」 촬영, 과밀 수용 현장 전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SBS 「모닝와이드」 촬영팀이 인천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촬영은 150%를 웃도는 과밀 수용현장을 보도하고자 진행됐으며,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겼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협력기관과 함께한

「2026년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6월 18일 '새 출발을 위한 일자리 연결의 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소 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협력기관이 참여,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 정착을 도왔다.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 긴급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 약속



포항교도소는 지난 6월 9일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체결은 수용자 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으며, 양측은 향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교도소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업무협약, 중독 수용자 회복 지원

부산교도소는 지난 6월 16일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재할 교육 전문성 강화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등 중독 수용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천소년교도소

마약 예방 청소년 뮤지컬 「N번의 고백」 상연

지난 6월 29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청소년 뮤지컬 「N번의 고백」 무대가 열렸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최근 교정시설 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들의 재범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개최, 수용자 278명 참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6월 8일 수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대사습청은 판소리, 국악, 전통무용 등 다양한 전통예술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수용자 278명과 직원 17명 등 총 295명이 참석했다.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기일 맞아 전 직원이 순직 교도관 추모

대전교도소는 지난 7월 13일 공무 수행 중 순직한故 김동민 교감의 묘소를 정비하고 참배 행사를 가졌다.故 김동민 교감 순직일인 7월 15일에는 순직 교도관 추모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조리본을 가슴에 달고 추모에 동참했다.



청주교도소

“화합 다지고 스트레스 날렸다!” 직원 체육대회 개최

청주교도소는 지난 6월 23일 직장 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족구, 단체 줄넘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 세대에게 친숙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직원들은 “친목도 다지고 스트레스도 푼 1석 2조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성교도소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참여, 직접 구운 빵 보훈단체에 전달

홍성교도소는 지난 7월 17일 충남서부보훈지청이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 후원으로 진행된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함께 만든 빵은 홍성군 내 보훈단체에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제복의 무게를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청주여자교도소

“교정 현장을 지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커피차 보낸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 7월 1일 청주여자교도소에 깜짝 선물을 보냈다. 직원들은 시원한 음료를 가득 실은 커피차를 톰툰 방문해 더위를 식히는 한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가 새겨진 응원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전주교도소

환경 정비 나선 직원들, 주민과 민원인 위해 구슬땀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지난 7월 3일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직원들은 교도소 외부 정문에서 인근 마을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와 버스 정류장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초 작업을 시행해 무성해진 잡초를 깔끔하게 제거했다.



군산교도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 수상 쾌거

군산교도소 직업 훈련 수용자들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 직종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했다. 6월 19일에는 군산시립예술단을 초청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무대는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선곡으로 수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교도소

직원들 위한 클래식 음악회 “퇴근 후 힐링 충전했어요”

장흥교도소는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지송 첼리스트의 연주와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클래식에 관심 많은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광주교도소

“호국영령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 현충탑 참배

광주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광주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렸다.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참배에는 박경선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각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충탑과 위패봉안소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EVENT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Quiz

2015년 고위험군 범죄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교정본부 내 조직은 무엇일까요? 서울지방교정청을 비롯한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돼 있으며, 고위험군 범죄자의 경비 처우급을 정하고 개별 처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ㅂ ㄹ ㅅ ㄷ

Hint 과학적 '분류심사'의 최전선이에요.

✉ correct2023@naver.com으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C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